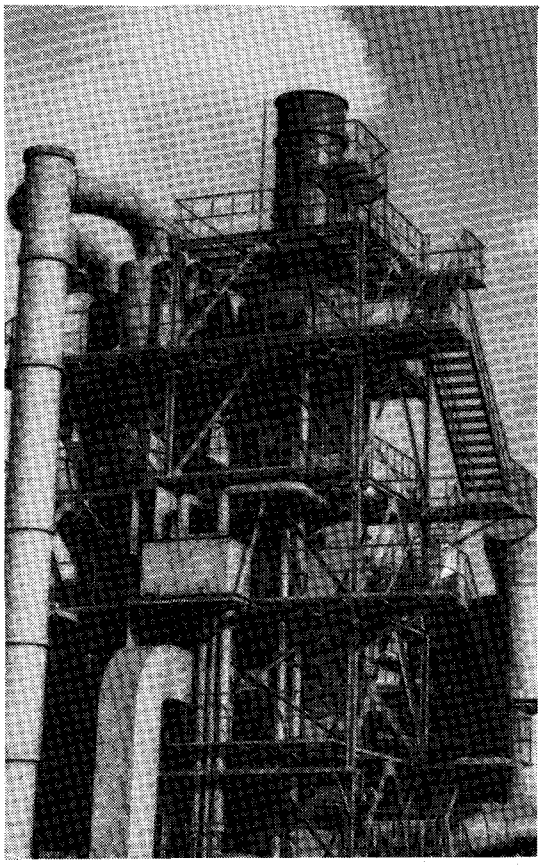
푸른 국토는 문화창달의 지름길

국내 펄프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전주제지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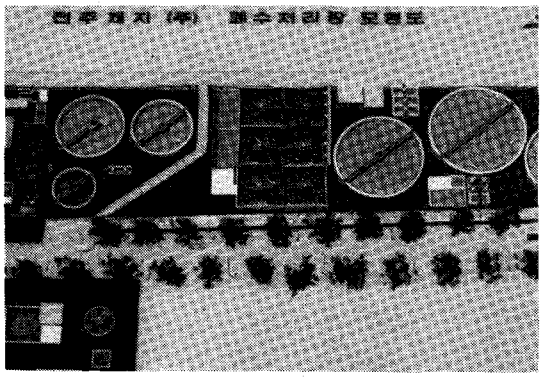
종이는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이기도 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1965년 새한제지로 출발하여 1968년 전주제지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꾸준히 국민문화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전국 각지의 4000여만평에 달하는 조림단지를 조성,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의 종이를 만들어 내려는데 혼신전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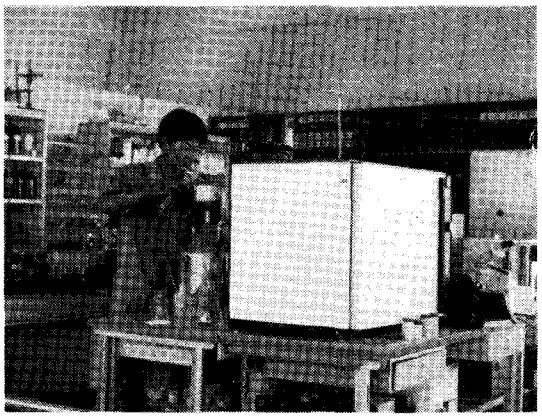
전주제지는 인화단결, 창의개발, 친절봉사라는 공동지표아래 고도화된 기술과 자동화된 설비, 철저한 사전관리를 통해 최고급의 신문용지, 교과서용지, 중질지, 고급인쇄용지, 컴퓨터용지, 복사용지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창립 20주년을 맞은 85년 10월 초지 제4호인 수퍼머신이 가동되면서 년산 280,000톤 규모의 명실상부한 국제단위의 종합제지 메이커로 성장하였고 74년부터 10년동안 93억원을 투자하여 년간 28억원의 에너지절감을 기하여 84년 전국에너지 절약촉진대회에서 에너지 관리 우수업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는데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내여건 속에서도 내적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자원절약에 전력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적인 차원에서 환경관리를 하고 있어 큰 성과를



폐기물 소각장

거두고 있는데 관리업무는 공무부산하에 원동과에서 담당하고·있으며 1급기사 4명이 있고 폐수처리장은 1일4명씩 3교대로 관리하고 있다. 대규모 공장답게 베테랑급 관리인들이 열심이 뛰고있는 전주제지의 환경관리는 크게 대기오염 방지와 소음, 진동방지, 폐수처리등 셋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제지공업의 폐기물은 슬럿지와 공장일반쓰레기, 연소후에 나오는 재,원료과정의 불순물 등인데 매립 물량을 줄이기 위해 소각하면 30%가 줄어들게 되어 처리가 간편해 진다. 소각로는 금년3월부터 시운전하여 94% 가동율을 보이고 있고 월간 2,000톤의 스럿지를 배출하고 있으며 자체 매립장이 있으므로 위탁처리비의 절감을 가져오는 등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다.





전주제지 폐수처리장내 실험실

전주제지는 수질1종, 대기1종 업소로서 지금까지 35억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에너자 절감과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제지공업의 특성때문에 많은 용수가 필요하므로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폐수처리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다.

폐수처리에 있어서는 1차 약품응집침전 (화학적 처리)을 거쳐 2차 표준활성오니(생물학적 처리)와 3차 처리시에는 라인을 2개로 분리하여 재용시설을 하고 처리된 물은 염소로 소독하여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므로써 1일3만톤에 이르는 폐수량의 절반인 1만 5천톤을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市공업용수가 1톤에 75원이라면 1일 1만5천톤의 물을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므로써 1톤당 25원의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제지공업의 특성이 전력비에 비해 오히려 용수료가 비싸게 처지는 실정에서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폐수처리장 부지만해도 6천평에 이르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폐수처리장내에는 자체 실험실까지 마련되어 언제나 관리인들도 연구하는 자세로 환경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늘 먼 미래를 내다보며 더욱 알차고 효율적인 방법을 추구하면서 수출한국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제 제지공장에도 맑은 물이 흘러넘치게 되어 보람도 크다.